

##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No. 76 - Volume 2004 Issue 2

Summary in Korean

### OECD 경제전망: 2004년 12월 Vol. 2 No. 76

국어 개요

#### 석유 소비들이 중에서도 경기회복 계기 구현

장 필립 코티스 경제부장

2001년부터 세계경제는 침체에 돌입하며 발작적 동태를 보여 왔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경제학자 역시 만성의 지정학적 위태나 유가 및 금융시장의 급변동으로 경제활동이 저해됨이 없이 경기회복이 순조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몇 분기동안, 경제적 요행면에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며 미국경제는 선두, 동아시아 경제는 급속한 발전 이후 둔화, 유럽 경제는 지척거리는 상태를 보여 왔으며 한편 OECD 전체상의 가계신뢰도는 부진해 가는 실정이다. 이처럼 널리 확산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전염적 성격을 띠어 세계무역이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지 1년 내, 미국과 유럽의 기업신뢰도는 사상 최저 평균을 바로 상회하는 정도로 폭락하며, 향후 몇 개월동안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2개월 전까지만도 신중한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 전개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전환은 일종의 실망을 초래하게 되었다. 게다가 유가파동의 출현으로 OECD 경제의 신뢰도와 더불어 실질소득 규모가 하락하며 이러한 상황전환을 더욱 격화시킨 것이었다. 그런 와중에 최근의 유가파동에도 불구하고 머지 않은 미래에 세계경제는 경기회복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긍정적 신호도 다수 있다. 다시 말해, 건설한 대차대조와 고이윤이 초래한 기업투자로 인해 향후 미국은 현재의 회복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유럽은 회복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지출 역시 고용창출이 호전되어 가고 통화조건이 상당히 보완적인 현재 경제환경과 최근 유가하락의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다. 요컨대 이들 제반요소가 OECD 경제성장율이 2005-2006년에는 다시 동향수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지리적 측면상, 이러한 경기회복 계기는 아시아권의 지속적인 경기부흥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상반기의 불가피했던 경제둔화에 이어 3분기에는 경제활동이 촉진되었고, 일본은 수출활동이 재생하며 그 원동력 덕으로 눈부신 회복을 거두면서 투자, 고용 그리고 최종에는 소비분야에까지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지난 몇 개월간 잠시 휴식 중인 상태이다. 한편 북미의 긍정적인 경제개발 또한 최근 경제회복의 영향력을 한층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수면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한 유럽대륙 경우, 이들이 이로써 경기회복에 강력한 보조 역할로 가담하게 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지난 호에서 본 *경제전망* 보고서는 유럽경제에 적당하나 호전적인 미래 전개를 장담했는데 이는 2005-2006 년 사이 세계무역과 OECD 산출량은 그 증가율이 미미할 것이나 이에 반해 동시기에 유로지역 내수의 증가율은 뚜렷할 것이라는 보장이었다. 무려 유럽은 비교적 우수한 성장율의 진로에 돌입토록 자율적인 경제체계의 토대를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독일 경우에 더 각별하다. 아울러 이 각본이 이루어지려면 유가와 환율이 다소나마 안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야 내성력이 으레 미흡한 유로지역 또한 여타 OECD 경제의 신속한 성장율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유럽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이나 유가 인상이 격화된다는 전제하 경제성장이 여전히 수출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또한 고유가는 산출의 고성장과 에너지 수요로써 대치되지 않기 때문에 강경한 유로평가절상은 한편 유럽전체에 과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여타 OECD 국에 비해 어찌먼 유럽의 입장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또다른 석유파동이 일어난다 해도 유로권 회원을 위시한 OECD 국가는 과거보다는 타격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GDP 비중으로 표기된 석유 의존도가 1970 년대 이후 절반으로 줄면서 가계나 기업자가 안는 소득부담은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괄목할 것은 현재 인플레이 기대심리는 저수준이고 잘 정착된 상태라 지금까지 유가 인상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명목소득과 핵심 인플레이 자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OECD 경제가 임금과 가격이 견잡을 수 없이 급상승했고 중앙은행은 혹독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해야 했던 1970 년대의 악몽스런 사태를 다시 겪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유가변동의 영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경제주체자가 이들을 인식하는 현실과 경제인들이 체계화한 지식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실제로 경제계량모델에 근거한 견적에 의하면 유가변동은 산출과 인플레이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인데 공식논의장에서는 이같은 유가변동이 핵심사항이 되어 경제신뢰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경제전망서*가 석유경제에 특장 하나를 별도로 할애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면에서 석유가 문제를 제기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단기 시각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전세계 인류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점차 고취해가는 현재 시점에서, 다달의 시장가격 변동보다는 미래의 석유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확고한 영향력으로써 경제환경 변화를 초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 석유는 OPEC 카르텔의 강력한 시장영향력을 감안해서 낸 장기 균형가격까지도 월등히 초과했다고 본고 OECD 전문가들은 보고한다. 활용 및

공급 가능한 중요 자원이 여전히 존재해 있고 특히 유리한 입장의 OPEC 국가가 석유수요 증가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어 놓았으므로 앞으로 기존 장비체제가 대폭 개선, 정립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여타 대안의 에너지원료는 어찌면 벌써부터 시세 판매시에도 수익성이 보장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빠른 시일내 3-4년 전의 통용된 저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강경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가격급변성의 심화가 새로운 석유장비사업 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가하락이 신속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유로, 유가는 가까운 미래에 여하히 후퇴상황에 진입하게 되지만 여전히 1990년대 보다는 높은 수준을 고수할 듯 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는 현재 시점에서 활력을 띤 신흥경제국의 수요가 또한 향후 유가를 조성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신흥경제국의 중요성은 단지 세계경제에 이들의 기여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 뿐 아니라 더 획기적으로는 일정의 경제활동 증가를 감안할 때, 이들의 석유수요 정도가 OECD 평균치를 월등히 상회한다는 사실에 또한 기인한다. 아울러, 미래 유가 추이는 미국 및 신흥경제국들이 에너지보전 차원에서 개개의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지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재생불가능한 천연자원의 신중한 운영만이 OECD 권내 장기개발지속을 좌우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닌 것이다. 공공 재정의 점검, 개선 또한 미래 세대의 후생 제고에 절대 불가결한 조건이다. 본고 사실을 통해 예전에 여러 번 예견한 바, 현행 국가예산계획 동향을 참작할 때 대다수 OECD 국가의 구조적 적자는 그다지 특기할 만한 경감은 못 보게 될 것이라는 본고의 입장을 여기에 다시 고취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연금·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논의방향이 곤란케 되며 점점 궁지에 처해가는 상황에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신중한 민간 주체가 개개의 저축 증진을 도모하면서 공공의 낭비풍조에 반응,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방향의 추세를 반영한 실례가 현재 확실히 있기는 하다. 게다가 바로 이것이 본 *경제전망서*에서 재정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다룬 특장의 메시지이다. 하지만 민간저축의 촉진으로써 공공부문의 저축삭감현상을 완전히 보완, 수습한다는 것은 대체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이 사전예방적인 반응을 보일지 아닐지는 역시 국가 내지 역사적 상황의 성격 나뉠 수도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국민 반응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무렵 재정정책은 이미 인구고령화로 심화된 재정지출압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압력 경감에 한몫하면서 최근 진척된 경기회복을 잘 활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점진적이나 광범위한 경비 감축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OECD 2004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